

2011년 3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1,972조회)

아버지 자리
父の場所

아버지는
父は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自然になることではなく

스스로 그 역할과 의미를 창출해가는 것이다.
自らその役割と意味を創出していくことだ

아버지 노릇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일생에서
父の本分とはなんだろうか、自身の一生で

그것은 어떤 경험으로 자리매김되는가.
それはどんな経験で、位置づけされるのか

남자들은 자아를 향한 그 질문에 직면하게
男たちは、自我に向けたその質問に直面する

되었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침묵,
ようになった。父たちは自身の沈黙

그 베일에 가려진 마음에
そのベールに包まれた心に

넌지시 다가가
それとなく近づいて

어루만져 볼 일이다.
触れてみることだ

- 김찬호의《생애의 발견》중에서 -
- キム・チャノの<生涯の発見>より -

*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 父は全知全能の神ではありません

천하장사도 아니고 높고 높은 태산도 아닙니다.
世にまれな力持ちでもなく、高い泰山でもありません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 지쳐서 누군가가 어루만져야
たまにはとても弱く、簡単に疲れて、誰かが触れてこそ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やっと立つことができる、弱い一人の人間であるだけ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리는 막중합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父の場所は重いです

그 집안의 모든 것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その家族の全てのことがかかっているからです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父が生きてこそ家庭が生きます

저-절로

1. [부사] 自然に; ひとりでに; おのずから。

창:출 [創出]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創出。

2.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初めて成し遂げられて生ずること。

노릇

1. [명사] 職業などを表わす名詞についてそれを俗っぽくいうことば:…業;…屋;…役;…職。

2. [명사] 本分...

이-치づ-ける [位置付ける]

1. [하1단 활용 타동사] 자리매김하다. 어떤 위치에 놓다. 평가하다.

가려-지다

1. [자동사] 가리어지다の縮約形。

가리어-지다

1. [자동사] 遮られる; 隠される; 塞がる; 包まれる。[준말]가려지다

년지시

1. [부사] それとなく; そっと; 暗に。

어루-만지다

1. [타동사] 撫でさする; 撫でる; さする。

2. [타동사] 労わる; 慰める。

천하-장사 [天下壯士]

1. [명사] 世にもまれな力持ち。

2. [명사] シルムでの最高位。

지:치다1

1. [자동사] 疲れる; へとへとになる; くたびれる; 飽き飽きする。

막중 [莫重]

1. [명사·하다형 형용사] 非常に重いこと; 重大なこと。

집-안

1. [명사] 家族; 身内; 家; 内輪。

2. [명사] 家柄; 家門; 家庭。

2011년 3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1,826조회)

너와 나의 인연
あなたと私の因縁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これほど広い世の中で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다.
これほどたくさんの人々の中で私と、あなたがであった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そして、私はあなたを愛して、あなたはまた私を

사랑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あいする。愛する男女の因縁とは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だからまぶしく、恐ろしい

아름다운 기적이다.
美しい軌跡だ

- 최인호의《인연》중에서 -
- チェ・イノの〈因縁〉より -

* 너와 나의 인연,
* あなたと私の因縁

빛처럼 기적처럼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光のように奇跡のように、神様が与えた贈り物です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려도 그럴수록
たまには心が不便で、揺れてもそうするほど

더 잘 다듬고 가꾸어 인생 끝까지 함께 가야 할
きちんと整えて、育てて人生の終わりまで、共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まぶしく、恐ろしい、美しい因縁です。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一途な信頼と愛で

다듬다

1. [타동사] 整える;きちんとそろえる;手入れする。
2. [타동사] 練る;推敲する。

가꾸다

1. [타동사] 栽培する;(手をかけて)育てる。
2. [타동사] 手入れをする。

한결-갈다

1. [형용사] ひたすらである;一途である;終始一貫している。

2011년 3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4,434조회)

딱정벌레
カブトムシ

거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巨木を倒そうとすることは

천하를 호령하는 벼락이 아니라
天下をとどろかす雷ではなく

나무 속에 사는 조그만 딱정벌레라는 사실을
木の中で生きる小さなカブトムシという事実を

명심해야 한다.
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

- 송길원의《비움과 채움: '어포스트로피'가 생각을 바꾸다》중에서 -
- ソン・キルウオンの〈あきと満たし: 'アポストロフィー'が思いを変える〉より -

*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 愛も同じです

내 마음에 작은 딱정벌레가 들어앉아 있으면
私の心に小さなカブトムシが、入っていれば

내 마음이 먼저 조각나고, 마침내
私のこことがまず、ばらばらになり、ついに

상대방의 마음도 부숩니다.
相手方の心も破壊します

딱정-벌레

1. [명사] 『곤충』カブトムシ(コガネムシ科の昆虫)。

거:목 [巨木]

1. [명사] 巨木。

2. [명사] 大きな木; 巨樹。

넘어-지다

1. [자동사] 倒れる; 転ぶ。

호:령 [號令]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号令; 上の者が下の者に命令すること, またその命令。

2. [명사·하다형 타동사] 大声で怒鳴りつけること。

부수다

1. [타동사] 壊す; つぶす; 砕く; 破壊する。

2011년 3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4,705조회)

'원수를 사랑하라'
仇を愛しなさ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仇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は

원수를 갚기 위해 너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仇をとるために、君自身を傷つけるなという意味です

원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열배 백배의
仇に苦痛を与えるためには、それより10倍、100倍の

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心的苦痛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仇を愛しなさい'という言葉は

다시 말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言いかえれば'君自身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원수는 하나님과 법률이 심판하게 두고
仇は神と法律が審判するようにして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平和な心を持ってという意味です

- 한창희의《혀, 매력과 유혹》중에서 -
- ハン・チョンヒの<舌、魅力と誘惑>より -

*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 また他の違った意味もあります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을 완성해 나가라.
仇を愛するほど、愛を完成していきなさい

마음에 미움을 걷어내고 오로지 사랑만 남겨라.
心に憎さを取り除いて、ひたすら愛だけ残しなさい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それで、ついに世の中の全てのことを愛すようにしなさい

그러면 조물주도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
そうすれば、創造主もお喜びになり、手伝っていただける

그런 뜻도 있습니다.
そんな意味もあります

원:수 [怨讎·怨讐]

1. [명사] 怨讐; 仇; 仇敵。

해:-치다 [害—]

1. [타동사] 害する; 損なう。

2. [타동사] 傷つける; あやめる; 殺す。

혀

1. [명사] 舌。

2. [명사] 振動して音を出す薄片; リード。

우유의 걸더깅이를 걸어내다. → 걸-더깅이

20110324.txt

牛乳の表面の薄い膜をとりのぞく。

조:을-주 [造物主]

1. [명사] 造物主; 天地の万物を創造した神; 造化。

2011년 3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4,441조회)

나는 매일 아침 걸어서 서재로 온다
私は毎朝歩いて、書齋に来る

나는 매일 아침 걸어서 서재로 온다.
私は毎朝歩いて、書齋に来る

후미진 소금 늪지 위로 높이 솟은 모래 언덕에
奥まった岩塩の沼地の上で、高くそびえたった砂丘に

서재와 소나무들, 나는 모래 언덕 꼭대기에 서서
書齋と、松の木々、私は砂丘の頂上に立ち

몸을 녹이다가 소나무 밑을 걸어서 서재에 들어간 다음,
体を溶かして、松の下に歩いていき、書齋に入った後

걸쇠가 걸리도록 문을 꽂 달는다. 한동안 아무것도
掛け金をかけるように、門をきちっと閉じる。しばらくの間、なにも

보이지 않는다. 눈앞의 녹색 반점이 어두운
見えない。目の前の緑色の斑点が暗い

곳에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ところにあるほかの全てのものより

더 강하게 빛난다.
さらに強く光を放つ

- 애니 딜러드의《창조적 글쓰기》중에서 -
- アニー・ディラードの〈創造的物書き〉より -

* 저도 매일 아침 걸어서 서재로 옵니다.
* 私も毎日あるいて書齋に向かいます

옹달샘 동쪽 언덕에 자리한 '고도원의 춘하추동'입니다.
小さな泉の東側の丘に位置する'ゴドウオンの春夏秋冬'です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늘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春、夏、秋、冬、季節ごとに、いつも新しく美しいです。

물론 날씨에 따라 마음마저 몹시 추운 날도 있고,
もちろん天気によって、心さえとても寒い日もあって

누군가와 연락이 두절되어 홀로 선 나무처럼
誰かと連絡が途絶えて、一人で立った木のように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재 문을
さびしい日もあります。しかし、書齋の門を

꽂 달고 책을 펼치면 몸과 마음에
きちっと閉めて、本を開けば体と心に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もう一度がやってきます

후미-지다

1. [형용사] 入り江になっている; 入りこんでいる; 奥まっている。
2. [형용사] 奥深くひなびている; 辺鄙である。

늪지 沼地

솟다

1. [자동사] 出る; 昇る。
2. [자동사] そびえる; そびえ立つ; そばだつ。

걸쇠

1. [명사] ㄱ型の掛け金。

2. [명사] シフトキー。

춘-하-추-동 [春夏秋冬]

1. [명사] 春夏秋冬。

애니 딜러드(Annie Dillard)

20110326.txt

2011년 3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607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하혜련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ヒョラ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
すべての事を生かすこと

당신 마음 속의
あなたの心の中の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解決されない全てのことについて耐えよう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씌어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閉ざされた部屋のように、外国語で書かれた本のように、疑問自体を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愛するようにしなさい。答えを求めないようにしなさい。あなたが答えのままに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요지는
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答えはくることはない。要は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すべての事を生かすことだ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今は疑問を抱いて生きなさ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そうしてみれば、自分もわからないうちに徐々に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答えの中に生きようになる日が来るだろう

-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
- ライナー・マリア・リルケの<若い詩人に送る手紙>より -

*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 目の前に広がっていること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まったく理解ができないときがあります

감정이 앞서고 누군가에게 물어서라도 해답을 알고 싶죠.
感情が先立って、誰かに聞いても答えを知りたいでしょう

그러나 이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열심히
しかし、これからはよいことも、悪いことも、熱心に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生かさ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わかっていきます。

인내하며, 긍정할 것을 믿으며
耐えながら、肯定することを信じながら

그렇게 기다려갈 겁니다.
このように、待っ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잠기다1

1. [자동사] 잠그다1의受動。
2. [자동사] 閉まる; 閉ざされる; (錠などが)掛かる; 下りる。

요지 [要旨]

1. [명사] 要旨; 大要; あらまし。

도무지

1. [부사] 否定的事実[事態]の結果を表わす語の前に付いて:どうしても; さっぱり; 全く; 一向に; ま...

Rainer Maria Rilke